

SK케미칼, 울산에 바이오공장 건설

SK케미칼은 울산에 2015년 말까지 친환경 바이오 공장을 건설·가동한다.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장 건설과 관련해 9월30일 울산국가산업단지의 SK케미칼을 방문해 신규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만석 부시장은 SK케미칼이 2011년 3월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00억원을 투입해 남구 황성동 일대에 12만3000㎡(해양 매립지 4만㎡ 포함)의 공장용지 개발에 나선 데 대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장이 건설되면 1조1800억원의 매출과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SK케미칼이 공장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1/09/30>